“은퇴신도 욕구 진단… 활동 분야 개발해야”

천태불교硏, 10일 ‘고령사회’ 주제 학술대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고령사회에서 사찰 운영과 복지 방안을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이봉춘)은 11월 10일 서울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고령화 사회의 사찰 운영과 신도복지’를 주제로 천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고령사회에 맞는 신도 복지와 종단 참여 방안 등을 제언하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은퇴신도의 종단 활동과 기여 방안 모색’을 통해 은퇴신도에 대한 욕구 진단과 이에 대한 종단적 대처를 주문했다.

백도수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음을 상기시키고, “2020년이면 70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으로 편입돼 노인이 새로운 문화수요계층으로 부각되며 은퇴자의 종교활동도 신풍조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은퇴신도는 주체성과 자존감을 갖고 사찰과 단체와 연계해 활동하는 역할자로서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은퇴신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요 계층에 대한 종단 차원의 욕구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백도수 교수의 제언이다.

그는 “은퇴신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인식전환과 공부가 필요하고, 은퇴신도의 욕구를 종단 차원에서 진단해 대처해야 한다”면서 “종단(천태종)과 종단 산하단체에 은퇴신도를 위한 공간과 시설, 수용시스템 ·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은퇴신도의 능력에 맞는 지위와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종단이나 단체에서 활동하는 좋은 활동모델들을 사례별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팀별, 사례별로 종단과 종단 산하단체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나 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숙 금강대 초빙교수는 천태종 차원의 노년 생활공동체 운영을 제안했다. 이혜숙 교수는 선행 조사들을 통해 노년 불자들이 재정형편을 걱정하고 행복감이 적은 상황임을 진단하며 종단 차원의 실버 공동체 설립을 주장했다.

‘노년기 불자의 건강과 수행 프로그램’을 발표한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문화치유명상을 통한 노년 불자들의 건강 증진 방안을 제언하고 시연을 진행했다.

김응철 교수는 “문화치유명상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각종 문화현상을 치유명상으로 연계시켜 활용하는 생활 명상”이라며 “사찰에서 이런 원리를 활용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노인들의 육체 · 정신 건강은 물론, 포교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은 11월 10일 서울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고령화 사회의 사찰 운영과 신도복지’를 주제로 천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종단 차원 욕구 진단하고
은퇴신도 활동 기회 마련
종단-산하단체 연계 필요
실버 공동체 설립 제안도

사노위, “반인간적 살인단속, 멈춰야”

11월 19일, 미얀마 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오체투지

조계종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반인권적 단속을 중단하고, 관련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오체투지에 나선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11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서 청와대까지 ‘미얀마 딴저떼이 노동자 죽음 진상규명 촉구 오체투지’를 봉행한다. 이날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 동참한다.

미얀마 출신의 故딴저떼이(25) 씨는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서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피하다 사망했다. 경찰 측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사노위는 “단속현장의 원본 영상 등을 요구했지만, 법무부와 김포경찰서는 편집본만을 공개하고 있다”며 “이번 오체투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10년간 10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토끼몰이식 살인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간절한 몸짓이다”고 설명했다. 김지원 기자



11월 10일 열린 ‘한반도 평화다짐 걷기축제’서 7대 종단 신도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출발 전 구호를 외치는 모습.

“한반도 주인답게”…7대종교 함께 걷다

사회평화협, 11월 10일 한반도 평화다짐 걷기축제

“7대 종단 신도들은 남북 영토가 하나 되는 ‘땅의 통일’을 넘어, 마음이 하나 되는 진정한 통일의 정서적 기반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통일시대 한반도의 주인답게 각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한국사회평화협의회(이사장 이기흥, 이하 사회평화협)는 11월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서 ‘한반도 평화다짐 걷기축제’를 개최해 종교간 화합을 통해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불교 등 7대 종교 평신도 대표를 비롯해 각 직능대표와 시민 등 1500여 명이 걷기대회에 동참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개회선언, 개회사 및 축사, 범종교인 한반도 평화다짐 선언문 낭독, ‘하나된 약속’ 애드벌룬 세레머니, 2인1조 걷기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걷기대회에는 참가자들의 발걸음 수를 더해 한반도 총 둘레인 3,200km를 만들고, 한반도 전체가 하나돼 함께 걷는 의미를 담았다고 전해졌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모양 지도에 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적은 발자국 스티커를 붙이며 의미를 되새겼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축사영상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위해 함께 길을 걷는 도반과 화합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셨다. 오늘 행사가 종교와 계층, 남과 북 등 모든 장벽을 넘어 상생과 평등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지원 기자

통도사 종무원 기숙사 건립 ‘복지 선도’

상락재(常樂齋) 준공… “전국 사찰 첫 시도”

영축총림 통도사가 사찰에서 근무하는 종무원을 위한 기숙사를 준공했다. 전국 최초로 종무원 복지를 위해 지어진 신축 공간이며, 시대를 앞서가는 자세로 불교계 복지 분야에 새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도사(주지 영배)는 11월 9일 ‘종무원 기숙사 상락재(常樂齋)’ 준공식을 영축문화회관 내 기숙사 앞마당에서 봉행했다. 준공식은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치사 △축사 △테이프 커팅 및 현판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이 직접 찾아 치하하며 종무원 복지에 관심을 드러냈고, 주지 영배 스님과 율주 혜남 스님, 주요 국장단 스님들이 자리해 격려했다.

통도사는 기숙사 준공을 사부대중 공동체의 참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승가 공동체뿐 아니라 재가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목소리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방장 성파 스님은 “한국 사찰 가운데 종무원 복지를 위해 건물을 짓는 건 처음으로 안다. 이는 열린 마음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승속을 구분하지 않는 자세에서 나온 결과”라며 “주지스님의 열린 사고와 자비심이 만든 성과이니 근무하는 종무원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맡은 바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1월 9일 통도사서 종무원 기숙사인 ‘상락재’ 현판 가림막을 걷는 모습.

주지 영배 스님은 “처음 주지 소임을 맡은 뒤 종무원 주거 환경의 열악함을 보고 前방장 원명 스님과 성파 스님께 간곡하게 요청해 개선 허락을 받았다”며 “종무원들은 종속관계도, 갑을 관계도 아닌 동체대비이자 하나 된 공동체 일환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 영배 스님은 취임 직후 산문 앞에 위치한 종무원 기숙 공간을 시찰하고 열악함을 확인, 2016년 2월 제70회 임회 때 기숙사 매입을 결의했다. 2016년 9월 영축문화회관 내 기숙사 현 부지를 선정했으며 2018년 2월 24일 기공식을 개최했다. 신축 기숙사는 연면적 약 1,525㎡(461평)에 지상 3층 규모로 방은 총 31개, 세탁실 및 취사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통도사 종무원은 100여 명이며 기숙사 부족으로 장거리 출 · 퇴근 등 어려움을 호소하던 직원이 많았다. 언제나 기쁨이 있는 집, ‘상락재’는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이 직접 지은 이름으로 ‘상락아정’(常樂我淨)에서 따온 말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환경연대, 11회 녹색불교포럼 개최

올 여름 역대 최고의 무더위를 갱신해 기후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는 가운데, 불교계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쓰레기 폐기물의 연기적 관계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11월 27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불교환경연대 교육장 그린담마홀서 ‘제11회 녹색불교포럼’을 개최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폐기물 문제의 연기성’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가 강연한다.

상임대표 법일 스님은 “우리나라는 기후불량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기후문제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같은 기후변화의 주범이 석탄화력발전소, 비닐플라스틱 쓰레기 등 문제와 깊이 연결돼 있음을 살펴보고 환경적인 해결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에 불교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청소년을 위한 최초의 해설!
고등학생을 위한 금강경
고등학교 교과서에 『금강경』 수록!
현직 고교 교장선생님이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그 핵심을 간결하게 해설, 정리하였다.
김형중 지음/신국판/184쪽/값 11,000원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 논쟁
깨달음에도 종류가 있는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역과 학파와 종파를 아우르는, 깨달음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고찰!
불교학연구회 엮음/신국판/452쪽/값 25,000원

생활 속의 명상 안내서!
명상 매뉴얼
명상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과 함께, 누구라도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 수록!
명상도 과학적, 체계적 훈련이 필요하다.
배철진 지음/국판 양장/296쪽/값 15,000원/자유문고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